

“전통 장흥고싸움 선보인다”...장흥군민의 날 28일 개최

4년 만에 실외행사...다양한 문화·체육행사 마련

김성 군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장흥 선보일 것”

제53회 장흥군민의 날·보림문화제가 오는 4월 28일 장흥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4년 만에 실외행사로 진행되는 올해 군민의 날·보림문화제에서는 장흥고싸움 줄다리기 시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사전 행사로 27일 ‘향우 어울림의 밤’과 군민의 날 축하콘서트인 헬로콘서트 ‘좋은 날’이 예정돼 있다.

향우 어울림의 밤은 오후 5시 장흥군민회관에서 열린다.

탐진강변 무대에서는 오후 6시 30분부터 관광·문화·예술 르네상스 원년 선포식과 함께

김희재, 정미애, 설하윤, 류지광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헬로콘서트가 진행된다.

28일 군민의 날·보림문화제 행사는 읍면 지역과 기관·사회단체의 가장행렬로 시작된다.

기념식에 이어서는 장흥고싸움 줄다리기 시연이 이뤄진다.

장흥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싸움 줄다리기는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무산될 위기에 있었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지로서연이 확정됐다.

장흥고싸움 줄다리기는 남부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고졸로 하는 우리나라 줄다리기

의 원형 또한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고싸움에 이어 10개 읍면을 대표하는 선수단의 체육 경연 행사가 이루어진다.

장흥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는 향토음식 경연대회와 그림, 사진, 서예, 목공예 등 문화에 슬던체들의 전시가 펼쳐진다.

편백공방 체험, 떡메치기, 캘리그래피 액자 만들기, 소방안전교육 등 다양한 체험도 마련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군민과 향우가 하나 되는 군민의 날·보림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군민과 향우들이 참여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장흥의 모습을 선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농협 영농지원발대식 개최

고추농가 일손돕기 및 영농폐자재 수거활동 실시

농협진도군지부(지부장 주명규)와 관내 지역농협 임직원 및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은 최근 진도군 고구면 및 지산면에서 2023년 영농지원발대식을 개최하고 고추농가 일손돕기 및 영농폐자재 수거활동을 실시하였다.

먼저 오전에는 선진농협(조합장 정해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고구면 가계리의 정년농 스마트 자동화 하우스 고추 밭에서 비닐 피복, 적절한 물 관리를 위한 점적호스 설치 작업, 고추 모종 정식(아주심기), 영양제 살포 등의 일손 돕기를 진행하였다.

이어 오후에는 서진도농협(조합장 강성민) 임직원 및 고향주부모임 서진도농협 분회(회장 신애연)원들과 함께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고자 지산면 일대에서 폐비닐을 걷고 인근 마을과 농지 주변의 영농폐자재 등을 수거하였다.

농협중앙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농촌일손돕기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범농협 임직원과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2023년 범농협 영농지원 발대식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최하고 농촌일손돕기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3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집중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고향주부모임 등 봉사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만들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도군지부 주명규 지부장은 “오늘 인력이 필요한 농촌 현장에서 영농인력을 지원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가꾸기 위한 2023년 영농지원발대식에 함께하여 주신 서진도농협과 선진농협 임직원 및 고향주부모임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공보의 14명 신규 배치...의료 공백 해소

강진원 군수, 공보의 간담회 갖고 지역 공공의료 개선책 모색

강진군이 전국적인 공보의 감소(2023년 276명)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공보의 14명을 신규 배치했다.

강진군은 지난 24일 보건기관 일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 의료서비스 개선책 마련을 위해 공중보건조사(이하 ‘공보의’)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공보의 수급 감소로 인한 지역 공공의료의 진료 기능 축소 문제와 다양화된 보건정책 사업에 대한 협업 대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강진원 군수와 올해 4월 신규 배치된 14명의 공보의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전국 최고 규모의

육아수당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건강 검진 사업 등 군 보건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공보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군은 지난 3월과 4월 초 12명의 공보의가 전역함에 따라 3주간 의료 공백 상태였으나,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남도에 방문, 신속 배치를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신규 공보의 14명이 추가 배치되면서 지난 4월 18일부터 정상 진료 중에 있다. 신규 공보의는 장기간 의과 공석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마량 보건지소 의과로 배치했다.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강진 건설을 위해 보건소 ‘소아청소년과’에도 분산 배



치했다. 한정된 의료인력 지원으로 인해 현재 대구보건지소가 의과 공석 상태이지만, 대신 한의과를 대체 투입하고 치료를 기존대로 운영하는 등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문내면, 전문기업 맞춤형 방역 “해충걱정 끝”

해남군 문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해충방제전문기업 세스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어르신 이용시설 등에 대한 유해 해충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협약은 문내면 지역특수사업의 일환으로, 협의체의 연간 사업 논의를 통해 방역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모아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다.

협약을 통해 문내면 취약계층 및 경로당 등 총 50개소에 대해 개별 대상 방문 진단과 총 2회에 걸친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게 된다. 협의체에서 연말 이웃돕기 성금 등 기금을 활용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 해충은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기적인 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업을 통해 해충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 쥐, 바퀴벌레, 진드기, 지네, 개미 등 유해 해충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역자 문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큰 어려움 중 하나인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